

교회 목표

- 1. 천국일꾼을 키우자
- 2.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자
- 3.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다"
(시18:1)

주간충현

발행인:신성종
편집인:윤명식
편집국장:손경수
발행처: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552-8300 FAX:563-3932
사서함:영동우체국 1896호

1992년도 목회 지침 표어: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회가 되자 주제성구:"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14:23)

기도운동, 성경공부, 전도활동에 최선을

충현의 온 가족이 92년 한 해의 목표 삼고 예수님 기쁘시게 하는 새 생명 운동 전개

우리 교회가 지난 1월부터 지속적으로 24시간 연속 기도를 통하여 기도 운동을 끊이지 않고 계속 불씨를 피우고 있다. 3월부터는 성경 공부의 확산을 위하여 성경연구원 주관으로 교사양성부, 찬양대원양성부, 그리고 주간성경공부와 크로스웨이 성경공부를 실시하여 지난 주간 1학기 수료 예배를 드렸다. 또 배가운동을 실

시하여 금년말까지 태신자 기록과 함께 전도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 완수에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당회장 목사를 비롯하여 당회원(장로), 남녀 교역자 및 충현의 온 가족들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새 생명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결과로 지금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새신자 등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금년말까지는 목표한 대로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아직까지도 참여하지 못한 충현 가족들은 지체하지 말고 교회가 펼치고 있는 기도 운동, 성경 공부, 전도 활동에 솔선수범 최선을 다하도록 하자.

카메라 초점



▲ 교회 배가를 위해서는 철저한 전도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지난 5월 21일 "평신도 전도 특강"을 개최하였다.



▲ 5월 25일 우리 교회에서 개최되었던 총회 선교부 주관 순회 선교 세미나 서울 집회

새가정부 여름 수양회 개최

새가정부(부장 김재균 장로, 지도 최인근 목사)는 오는 6월 5일과 6일 충현기도원에서 여름 수양회를 개최함으로써, 92년도 여름 수양회의 첫 테이프를 끊는다.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라는 주제 아래 최인근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진행되는 이 수양회는 매연과 소음으로 찌든 도시를 벗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를 찬양하며 말씀 연구와 성도의 교제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최측은 새가정부 회원은 물론, 신혼 가정이나 결혼을 앞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

고 있다.

92년도 제3차 세례식 거행

92년도 제3차 세례식이 지난 5월 22일 저녁 7시 갈릴라홀에서 거행되었다.

이 날 세례식에 참석한 성도들은 전날인 21일 저녁 7시 30분에 있었던 문답에도 참석하였다.

신성종 목사, 최인근 목사, 김창수 목사, 이조웅 목사가 집례한 이 세례식에서 78명이 학습을, 62명이 세례를, 39명이 유아세례를 받았으며, 입교 및 개종한 성도는 각각 4명이다.

살롬경로대학 6월 4일 야외 학습

살롬경로대학에서는 오는 6월 4일 중도(강원도 춘천 소재)로 야외 학습을 떠난다.

지난 4월 16일 개강한 이래 살롬경로대학은 60세 이상의 노인들로 하여금 성경 공부, 특별 활동 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보람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오고 있다.

이번 야외 학습에 살롬경로대학의 학생들뿐 아니라 주변의 노인들에게도 참여를 권유하여 전도의 기회로도 삼을 수 있기를 바란다.

충현프리즘

◎...계절의 여왕,
5월도 오늘로 마무리되고 영원한 과거로 보내게 되었다.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일을 치른 5월이었고, 교회는 교회대로 부흥회, 사경회, 세미나, 기도회, 그리고 청지기훈련 등의 영적 성장에 관한 집회들로 한 달을 보내게 되었다. 떠들썩하였고, 감동의 표현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빨간 장미가 생의

애착과 집념을 형상화할 때 우리 인생들은 감격하고, 휩쓸리고, 무엇인가 기대보려는 의타심 같은 정서에 휘말리게 된다. 그러면서도 주님의 인격을 새삼 기대하게 되는 묘한 심리가 작용하는 것은 무슨 연유일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창조주에 의해 피조되었다는 형이상학적 상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일까?

◎...민주화된 조직 사회에서는 개인의 의견을 존중해 여기면 서도 일방적 고집을 절대로 수용하지 않는

다. 여러 계층의 의견들을 피차 개선하면서 공통 분모를 찾아 목표와 근사치 되는 안건들을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민주적 회의 방법이다.

때때로 교회 기관들의 각종 회의에 참석해보면, 한 두 사람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고집된 의견에 동의를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내 의견이 수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 의견을 헐뜯고 흥분하고 격앙된 목소리로 회의 분위기를 망치는 무분

별한 회의 참석자들도 종종 있음을 보아 왔다.

일반 사회에서는 다수의 의견이 결정되면 그대로 순복하고 결정을 따른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왜 이 유가 많고 불순종하는지 모르겠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인간들이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자각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범된 회의 분위기 조성에 모두가 힘쓰면 어떨까?

금 주의 기도 제목

1. 우리 교회에 말씀과 기도 운동, 봉사와 전도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소서.
2.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에게 특별한 지도력과 건강을 더하여주시고, 보좌하는 교역자와 장로님들에게 힘과 영력을 더하여주소서.
3. 교인 배가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하소서(태신자 갖기, 교구 배가, 구역장교육, 충현금요찬양을 위하여).
4. 우리 세대에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북한 선교).
5. 충현봉사관 건립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자, 물자, 재정을 허락하여주소서.
6.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게 하시어 민족 복음화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7. 교회 배가를 위해 헌신할 좋은 부목사와 여전도사를 보내주소서.
8. 전교인 24시간 연속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소서.
9. 사랑의 실천운동으로 전개하는 헌혈 운동(6월 14일)에 적극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헌강단

신성종 목사

마땅히 될 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계4:1~11)

1. 서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열쇠는 1장 19절에 있습니다.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즉 요한계시록에는 과거계시와 현재계시와 미래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는 과거계시가, 2장과 3장에는 현재계시가, 기록되어 있고, 4장 이후에는 미래계시가 기록되어 있음을 4장 1절의 ‘이 일 후에’와 ‘이 후에 마땅히 될 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우연히 될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2. 본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계4:1)

하나님께서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빌라델비아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열린 문’이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문은 선교를 향해 열린 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빌라델비아교회는 선교할 수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4장 1절에 기록된 ‘열린 문’은 계시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계시를 깨달으려면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들이 선교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기도하려면 기도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마침내 사도 요한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계4:2)

성령에 감동되어야만 천국을 볼 수 있고, 열린 문을 통해서 계시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언을 해석해도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은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였습니다. 이는 미래계시를 보여주기 전에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하늘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앉아 있다는 말과 서 있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앉아 있는 것은 통치자의 자세이며 서 있는 것은 종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싸고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계4:3)

여기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그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범접한 인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았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습이 간접적으로 추상화되어서 나타납니다.

3절 말씀에서는 보석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묘사했습니다. 첫째는 벽옥과 같다고 했습니다. 벽옥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수정과같이 맑은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흠이나 티가 없으시며 거룩하신 분입니다. 둘째는 홍보석과 같다고 했습니다. 홍보석은 루비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상징합니다. 셋째는 녹보석과 같다고 했습니다. 녹보석은 에메랄드로,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뜻합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야만 천국을 볼 수 있고 열린 문을 통해서 계시를 들을 수 있어

그런데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무지개는 홍수 심판 이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것으로 일곱 색깔이 아름답게 조화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성결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운 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보좌에 둘러 이십사 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이십사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계4:4)

이십사 장로들도 서 있지 않고 앉아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이십사 장로’는 구약시대의 열두 지파와 신약시대의 열두 사도의 상징으로 교회의 대표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입은 옷은 흰 옷인데, 이 흰 옷은 의의 세마포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이신칭의(以信稱義)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십사 장로들은 그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금면류관이 두 가지 단어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왕이 쓰는 면류관이고 다른 하나는 승리자가 쓰는 면류관입니다. 이십사 장로가 쓴 면류관은 왕이 쓰는 면류관이 아니라 승리자가 쓰는 면류관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승리자가 쓰는 금면류관을 쓴 것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켜져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계4:5)

번개는 하나님의 위엄을, 음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뇌성은 하나님의 경고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경고가 나타납니다.

또한 보좌 앞에는 일곱 등불 켜져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성령밖에 기억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곱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영이 일곱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곱이라는 수자는 하늘의 수자인 성부, 성자, 성령 셋과 땅의 수자인 동서남북 혹은 춘하추동의 넷을 합한 완전 수입니다. 그래서 일곱 영이란 일곱 가지 속성을 가진 완전한 영, 곧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계4:6)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이 유리 바다는 수정과 같이 때문에 거기를 통과하게 되면 모든 것이 환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은 그곳을 통과할 수 없고 죄없는 사람만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유리 바다를 통과해야 하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나라에 가기를 원한다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유리 바다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가 아무리 큰 의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때론 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야말로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를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궁창 위에 있는 물은 깨끗한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로 천사들이 사는 세계이며, 궁창 밑의 물은 오염된 물로 사해와 같은 이 세상입니다. 우리들은 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계4:7)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스틴은 이 네 생물은 4복음서를 가리키는 것이라 했고, 율보드라는 학자는 하나님의 네 가지 성품, 즉 하나님의 위엄성과 능력과 지혜와 기동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또 다른 학자는 네 천사장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네 생물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지만, 네 생물이 보좌 주위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사장으로 해석해도 무난할 줄로 생각합니다.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기록하다 기록하다 기록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계4:8)

네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기록하심과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양하였습니다.

“그 생물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돌릴 때에”(계4:9)

네 생물이 하는 일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을 도적질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진정한 성도의 삶입니다.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계4:10, 11)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십사 장로의 행동입니다. ‘던진다’는 말은 번역이 잘못된 것으로 ‘드린다’는 표현이 옳은 것입니다. 면류관을 드리는 이유는 비록 승리해서 면류관을 받았지만, ‘우리들은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 주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입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면류관을 다 돌려 보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영광이나 감사나 존귀를 받았다면 다시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진정한 영광과 존귀와 감사가 하늘나라에서 더욱 넘치게 될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이때에는 주로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청소년의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노인에 대한 문제를 소홀히 한다는 것이다.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노부모에 대한 효도뿐만 아니라 이웃의 노인들을 공경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지금 심각해져 가고 있는 노인 문제를 심층 분석하고 우리의 가정에서 노부모에 대한 문제점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때이다.

소망부를 맡아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로서 나름대로 느끼고 있는 아쉬움을 이 지면을 통해서 제시하면서 자녀된 자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노인을 공경하며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수 있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노인화의 현상

노인이란 인간의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행동의 변화가 상호 작용하는 복합 형태의 과정이라고 한다. 생리적, 육체적으로 변화기에 있는 사람이고, 심리적인면에서 개성의 기능이 감퇴되고 있으며,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관계가 과거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라는 인생의 종말을 누구보다도 가깝게 두고 있는 사람들이다. 연령으로 보면 65세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이들 인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이유는 과학 기술에 따른 의학의 발달과 복지 시설의 증가로 생명이 연장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환경적 요인도 있으며, 생존에 대한 강한 심리적 요구도 있다. 또한 환경에 대한 적응도 생명을 연장시켜주며 저출산, 저사망은 인구의 노령화에 더욱 부채질을 하였다. 통계

>충헌논단<

그리스도인과 노인

김양홍 목사(제15교구 · 소망부 지도)



에 따르면 지금 평균 수명이 70.8세인데, 이것은 20년 전보다 무려 7.6세가 길어진 통계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65세 이상 수는 전체 인구의 4.7퍼센트이다.

노인들의 성격의 특성을 보면 장수, 쾌적한 휴식, 체력과 정력의 계속적 유지, 계속적인 사회 활동 참여, 재산 보유, 권위와 명예 확보, 영광스런 삶의 마침, 홀로 된 데 대한 고독감, 의심, 질투심, 보수성, 말이 많음, 과거에 대한 집착, 자기 중심적, 의존성, 융통성 없는 고집 등이다.

2. 문제의 제기

농경 사회에서 가족 중심으로 모이던 것이 산업 사회가 되면서 점점 핵가족화 되었다. 여기에서 협동심, 응집력, 소속감이 약화되었고 다양화, 분업화, 전문화를 통한 고도의 기술이 부각되었다.

부모에 대한 의존이 약해지고 독립심이 생기면서 부모에게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 아울러 권위주의의 주종 관계가 약화되면서 민주적이고 애정적인 현상이 나타나서 부모에 대한 의무감, 특히 부양 책임이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점차 발전되는 과학적 사고는 노인의 축적된 생활의 지혜와 경험을 쓸모 없는 것으로 전락시켜버렸다.

가치관에 있어서도 부모는 과거 지향적인 데 반해, 자녀는 미래 지향적이므로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 특정 가치 처리에 있어서 의견 충돌이 자주 일어나게 되었다. 노인에 대한 개념이 점점 희박해져가며 노인들은 고립타분한

존재인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하였다.

이런 연유로 자녀들과 부모는 떨어져 살게 되었다. 자녀들과 떨어져 있는 노인들은 전체 노인의 25.3퍼센트이다. 그 중에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따로 사는 자들도 상당수가 된다. 한편 떨어져 사는 노인들 중 49퍼센트는 노인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앞으로 백년 후가 되면 노인 인구가 50퍼센트를 넘을 것이라는 보사부의 발표가 있다.

노인들의 고충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경제적 곤란이다. 둘째는 건강 문제이다. 자력 상실에 건강 상실까지 겹치게 되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된다. 셋째는 고독과 외로움이다. 가족과 사회로부터의 소외는 노인들을 눈물나게 한다. 넷째는 정년 퇴임으로 인한 자신감의 상실 등 역할 상실의 문제다. 다섯째는 부양 문제다. 노인이 독신이거나 노인 부만 살고 있는 노인 단독 세대는 전체 노인의 25퍼센트가 된다는 1989년의 통계 보고가 있다.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다. 이러한 일들은 노인들의 자신감을 결여시키는 물론이거니와 이로 인해서 피해 의식에 빠지게 한다.

3. 우리의 할 일

이제 이런 노인들을 위해서 일할 때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궁극적 사랑 실천은 노인 복지에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일차적으로는 물질적 봉사가 있어야 하고 점차적으로 물질적

봉양을 넘어서 정신적 봉양에 이르러야 한다. 또한 정신적 봉양을 넘어서 문화적, 사회적 참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 복지 회관, 노인정, 경로대학 운영, 노인 상담소 설치, 불우 노인 결탁 주선, 노인 찬양대원 양성, 교양 강좌 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일도 필요하다. 노인들에게 적당한 일거리를 주거나 그들의 재능을 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이것은 봉사의 측면뿐 아니라 노인들에게 자아 성취의 기쁨을 주는 일도 되기 때문이다.

재혼의 주선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조부모의 역할을 주는 일도 필요하다. 손자녀와의 관계를 연결시켜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자식의 버릇이 나빠진다고 하지 만 아이들이 사랑을 듬뿍 받고 살기 때문에 사랑에 굶주린 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이점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들은 손자녀와 노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있다. 노인은 지혜의 원천이기에 손자녀들에게 유익하며 놀이, 대화, 예절,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임기응변식이 되어서는 안되고 지속적이며 계획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신적 문제가 중요하다. 사고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젊은이들은 현대식 사고 방식과 편의주의 문화를 즐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전통 문화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젊은이에게 있어서 노인들이 요구하는 그 절차와 모양은 실질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고 할지라도 치러져야 하는 가정의 주요사에서 노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노인을 공경함과 효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청소년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노인의 문제도 심각하게 고조되고 있다. 이는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공동의 과제이다. 가정에서는 효도를 하고 사회적으로 노인을 우대함으로써 노령기를 안락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우선적 과제이다.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이나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을 새겨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노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 이들이 천국을 사모한다는 것도 거짓말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독교인은 배움이 아니라 나눔의 정신으로 노인들을 싸매고 감싸고 갈라진 틈을 메우며 공동체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한다. 사회 구조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를 교회가 해결하기는 힘들어도 노인을 공경하며 그들에게 역할을 주어 자신감을 회복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노인이 된다. 이것은 진리이다. 그러므로 노인들에게서 냄새가 난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들의 냄새나는 부분을 씻어주어야 하겠다.

장로칼럼

진실(眞實)



박영식 장로
(중등2부 부장)

교회는 천차만별의 많은 사람들이 모인 집합체이기에 진실하지 못한 어두운 면들이 우리 안에 있음은, 교회로서는 치명적인 병폐라 하겠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신앙에 열심을 내어도 은혜의 생활이 되지 못하고, 욕심을 부려 은혜는 받았지만 진실하고 깨끗한 생활이 뒷받침 되지 못함으로,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거나 이 사회와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진리로서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개개인이 바로 진실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령 받은 이야기 또는 체험적인 신앙을 간증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단히 잘 믿는 신앙인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교제하고 거래하며 같이 지내보면 냄새가 나고 예사로이 거짓을 말하며 남을 속이면서도, 교회에 나올 때에는 외형적인 변신으로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충만한 은사 이전에 먼저 진실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실하고 참된 삶이 없이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감히 나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경된 바리새인과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안은 무엇이며, 겉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시대와 그 사회의 안은 신앙이며 종교이고, 정치, 경제, 사회는 겉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의 종교가 진실하지 못하면 어떠한 사회도 그 이상으로 진실해지거나 발전해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가 깨끗하여질 때 사회가 정화된다는 말입니다.

신앙 생활은 먼저 주님 앞에서 나 스스로가 진실하기 위한 쉬임없는 경건의 연습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진실하여지기 위하여 언제나 기도하여야 합니다. 솔직히 교회가 진실이 없으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밖을 향하여 비판하며 질책하기 전에 나 자신의 실상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좀 더 진실해지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거둔 우리들, 우리 교회가 생명을 걸고 진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참되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한다면, 우리의 후대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병들고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과연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삶을 태워서 빛을 발하여야 하며, 짙어 냄새나는 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 녹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호 칼럼은 마성락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충현금요찬양 찬양 및 율동팀 모집

충현금요찬양을 함께 도울 찬양 및 율동팀을 모집합니다.

찬양에 관심이 있고, 소명감이 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자격 : 만 21세의 세례교인
- 접수 : 사무국 (교육관 102호)

교구별 야외예배

제1교구

- 일시 : 6월 6일
- 장소 : 양재시민의 숲

제2교구

- 일시 : 6월 6일
- 장소 : 양재시민의 숲

제9교구

- 일시 : 6월 6일 오전 10시
- 장소 : 태릉 푸른 동산

제11교구

- 일시 : 6월 6일 오전 9시
- 장소 : 고덕 그린공원

제12교구

- 일시 : 6월 6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올림픽공원 (제1체육관 옆)

제16교구

- 일시 : 6월 6일 오전 10시
- 장소 : 양재시민의 숲

중등2부 짝초청전도대회 개최

중등2부(부장 박영식 장로, 지도 김학진 목사)는 배가운동의 일환으로 그 동안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씩을 전도하기로 하고 기도해오다가 이들을 초청하여 신앙인으로 결신시키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어제는 짝초청잔치를 열어 친교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다. 또 오늘은 짝초청전도집회를 개최하여 김해규 목사를 모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특강을 실시한다.

충현 30대 만남의 날

30대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갖고자 하니 모든 30대 형제, 자매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요한·마리아전도회원들의 참석을 요망합니다.

- 일시 : 6월 4일 (목) 저녁 7시
- 장소 : 갈릴리홀
- 강사 : 송태근 목사
- 주제 : 생명, 교제, 그리고 비전

배가운동은 교구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유아원, 유치원, 장애아동조기교육원, 살롱경로대학, 탁아부 등 다섯개 교회학교를 제외한 전 교회학교 차원에서 구제적인 세부 계획에 의거하여 단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배가운동본부에 제출한 교회학교 각 부서의 보고 내용에 의하면, 각 부서는 "사람을 강

거나 대예배는 드리지만 교회학교 집회에 참가하지 않는 성도들을 되찾기 위한 "잃은 양 찾기"를 위하여 주일에는 교회마당에서 찬양을 하면서 자기부서를 홍보하거나 교사들과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전화로 심방을 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해나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 등록한 회원들을 다시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

특히 초등5부에서는 "어린이 구역"을 편성하고 어린이가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교사를 파송하여 친교와 전도의 전초 기지로 삼고 있다.

그밖에도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는 전도 특강을 개최하거나 전도왕을 시상하거나 전도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회원들에게 전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사명감을 고취시키며 전도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인배가운동은 하나

하나님께 드릴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며

- 세부 계획 세우고 배가운동 전개하는 교회학교 -

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눅14 : 23)든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마28 : 19) 등의 말씀을 주체 성구로 삼고, 태신자 카드 작성, 초청 전도 잔치, 잃은 양 찾기, 전도 특강, 전도 사례 발표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초등1부에서부터 대학부까지는 익수스와 같은 학교별 모임을 적극 활용하여 이를 복음 전파의 통로로 삼고 있다. 또한 토요일에는 교회 근처의 학교나 지역으로 나가서 교회 전도지나 자체적으로 만든 전도지를 나누어주면서 전도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교회에 등록하고서도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

록 하기 위하여 교사들에게 새신자 심방을 반드시 하도록 하였다.

기도의 뒷받침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교사들을 중심으로 24시간 연속 기도조를 편성하여 기도 중에 있으며, 일정 시간을 정하여 회원들도 각자 있는 처소에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힘입어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교회학교도 있다.



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여하신 귀한 명령이다.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

룩하자"라는 교회 목표나 "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회가 되자"는 92년도 목회 지침을 상기하면서 모든 회원과 교사가 일심동체가 되어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금년 연말에는 하나님께 풍성한 결산 보고를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딸아!

봄이 시작인가보다 했더니 때는 바야흐로 초여름. 어둡고 긴 추위를 이겨낸 인내의 의미가 파아란 잎사리로 상큼한 바람을 물고와 연녹색 아지랑이를 눈부시게 담아낸다. 여름을 환호하는 싱그러움을 보면 네 삶의 꿈도 이렇게 시작되는 기대감을 떨쳐버릴 수 없구나. 너를 생각할 때마다 또 네가 있음으로 해서 세상이 온통 내 것인 것만 같고 기쁨으로 가득차 있는 것 같고 말할 수 없는 어떤 풍요로움이 가정에 넘치는 것 같은 마음이다.

오래전 사람들은 서두에 "사랑하는 딸에게"로 시작하지만, 엄마는 그 "사랑"이라는 것으로도 표현이 부족해서 이 세상 무엇보다도 바랄 수 없는 내 생명의 일부분임을 생각하며 펜을 들었다.

네가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었어. 인생을 이야기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사람은 세상에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배우면서 사는 영장이다. 자연 섭리에서, 가정에서, 교회, 학교, 사회에서 끊임없이 배우며 생의 길을 걷는구나.

지금은 짜증나고 아무일도 할 수 없이 학교에만 매달려 있는 것 같지만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앞에 섰을 때는 이미 늦은 시간이다. 시작과 나중이 있듯이 해가 동편에 뜨면 반드시 서쪽으로 기울 때는 때가 있다. 그날에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삶이란 석양에 기울 때는 태양

과 같아서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바빠진다. 그러나 실망이나 좌절하지 말아라. 기울어진 태양이 어찌 다시 돌지 않겠으며, 희망 가득한 너에게 어찌 내일이 없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두를 사랑하신 까닭에 누구에게나 공평한 시간을 주셨다. 공평한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라.

딸아! 이제와서 생각하니 너와 엄마는 참 많은 시간을 얼굴만 바라보고 이야기 한번

나 한 인격을 어떻게 학교 점수에 비교하겠니?

대자연은 바라보아라. 모퉁이에 버려진 들풀이 따뜻한 봄을 알려 주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들맹이 하나도 대자연의 극치를 이루어 가고 있지 않니? 너에게는 네게 맞는 점수를 스스로 지켜야 할 책임이 있어야 한다. 네 자신의 가치는 무엇에 비교되는 것이 아니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존재이기 때문이야. 평범한 이야기로는 "제 할 탓"이라고

쉽게 생각하자. 그리고 사람은 무엇보다 겸손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도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길 원하는 사람은 스스로 높임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지. 교만한 사람은 결코 "참사람"이 될 수 없다.

부탁이 또 느는구나. 어디에서나 가슴을 펴고 심호흡하고 허리를 펴는 자신을 가진 사람이 되어다오. 적극성이 없는 사람에겐 아무런 행운도 주어지지 않는단다. 결국 자신이 고독해 지고 친구들과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모든 기회가 네 곁을 떠난단다. 엄마는 네가 사람되는 도리를 알고 배울 때까지 지켜보며 참고 기다리겠다. 네가 지내온 날들만큼 자라면 또 내일을 기다리면서 말아야.

딸아! 너무 엄마 이야기로 길어졌다.

다. 실타래처럼 풀려 나오는 사랑의 마음을 어찌 이 가느다란 펜 끝에 기대어 다 전하겠니? 마음 제일 깊은 곳에 물어두었다. 가계 출입문 사이로 아파트 잔디가 보이고 곳곳이 서 있는 싱그러운 벚나무 한 그루가 바람에 흔들린다. 희망을 쫓지 말아라. 네 꿈은 이상이 꽃피는 넓은 대지이길 빈다. 마음은 깊은 바다이길 빈다. 희망은 높은 하늘처럼 되길 빈다. 오늘 한 날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자. 모쪼록 건강 잃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너를 지키실 것을 믿는다.

5월 어느날 영도에서

독자의 글

딸에게

이인순 집사(제17교구)



넉넉하게 못하고 지내왔구나. 너와 함께 맛있는 것 나눠 먹으며, 재미 있는 구경도 다니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이 많았어. 한 울타리에서 살면서도 이렇게 대화의 시간이 귀해서 마음껏이 늘 비어 있는 것 같구나.

사람들은 복잡하고 바쁜 생활의 구조 때문에 가족의 대화가 단절되고 가정 문제가 사회 문제로 확산되면서 청소년이 문제로 변해간다고 걱정들을 많이 한다. 전체 청소년이 불량한 것처럼 말이야. 학교 점수도 그 인격 전체를 포함한 것처럼 비교하면서 가슴을 점점 죄어 올 때는 어떤 비애를 느끼게도 한단다. 그러

들 하더구나.

엄마는 너와 네 동생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감출 길 없다.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가 집에서 돌아올 시간에 기다렸다"가 맞이해줘야 하는데, 애써 공부하고 집에 들어설 때 텅빈 가슴을 무엇으로 메울까? 생각하면 당장 집으로 달려가고 싶어. 그러나 시켜서 기계처럼 움직이는 사람보다 각자 할 일을 척척해 나가는 너희들을 보면서 '삶의 부분들을 잘도 열어가구나.' 하는 대견스러움에 기쁜 위로를 받을 때가 많단다.

딸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기쁨을 자랑스